

삼성전자, 60나노 2G 원낸드 개발

삼성전자는 60나노 공정을 적용한 2기가비트(Bit) 원낸드를 개발했다고 6월27일 발표했다.

원낸드(OneNAND)는 읽기 속도가 빠른 노어플래시의 장점과 쓰기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 구현이 가능한 낸드플래시의 장점을 융합한 차세대 퓨전 반도체로 2기가비트 제품은 한번에 4킬로바이트(Byte)를 처리할 수 있어 쓰기 속도가 초당 9.3메가바이트에서 17메가바이트로 2배 가량 향상됐다.

또 여러 개의 칩을 차례로 쌓아 고용량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

2기가비트 원낸드 8개를 적층하면 초당 최대 136메가바이트까지 쓰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원낸드는 PC,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카드, 디지털 TV 등 다양한 응용분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29>